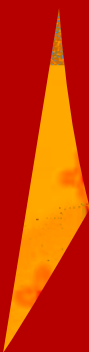




1



여는글 김 원 호

# 내 마음속의 자

언제부터인가  
나는 마음속에 자를  
하나 넣고 다녔습니다  
돌을 만나면 돌을 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재었습니다  
물위에 비치는 구름을 보며  
하늘의 높이까지 젖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지낸 자가  
제일 영리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켜 갖이 남거나 치지는 것을 보면  
마음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확실하게 살아야한다고  
몇 번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가끔 나를 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무관심한 체하려고 애썼습니다  
간혹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틀림없이 눈금이 잘못된 자일 거라고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도 내 자로  
나를 켜 적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직도 녹슨 자를 하나 갖고 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재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습니다



2004년

# 여름

- .....여는글- 내 마음속의 자
- 04.....센터로 가자!  
.....>>> 2004년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5.....프로그램 돋보기
- 06.....자원봉사활동에 대한 10가지 조언
- 07.....I'm teenager~  
.....>>> '성년' 10대, 성인병 위험
- 08.....쉬어가는 페이지  
.....>>> 여름(夏)  
.....>>>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과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응급조치  
.....>>> [여학생이 원하는 선생님] 교장 장동건, 미술 권상우
- 10.....추천영상물 - 장애, 여성, 독립의 조화 『거북이 시스터즈』
- 11.....활동터전 탐방 - 천안시
- 13.....청소년 진로정보  
.....>>> 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자기분석법
- 14.....직업의 세계  
.....>>> 큐레이터
- 15.....봉사활동 플러시 캠페인 활동  
.....>>> 정지선 준수 캠페인
- 17.....풍수해 대비요령
- 20.....봉사활동체험수기!
- 22.....사진으로 보는 청소년봉사활동

# 2004년 충청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목적

충청남도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공공복지증진과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며, 프로그램개발·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유발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실천을 통한 경험학습으로 올바른 성장과 복지사회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 목표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도 센터로서의 역할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기반구축
3.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
4.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보교류 촉진

## ※ 기능

1.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 보급
2. 봉사활동 수급정보관리 및 체계적인 정보제공
3. 청소년자원봉사 지도자육성 및 연수(교육)
4.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및 봉사·협력정신 함양
5. 자원봉사활동상담 및 청소년진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운동 등

## ※ 일반현황

1. 명 칭 : 충청남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2.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840
3. 설치자 : 충청남도지사
4. 운영단체 : (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논산지회
5. 개소일자 : 1997년 12월 1일
6. 인원 : 7명(소장, 사무국장, 운영부장, 운영요원, 행정요원)

## ※ 주요기능

1. 청소년봉사활동 수급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2. 청소년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봉사자 및 지도자 교육
4. 청소년봉사활동 기록유지 및 관리, 확인서 발급
5. 청소년육성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6.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역사회발전 운동전개



WOW! 신나는 여름 방학!

뚝뚝하 청소녀은  
봉사도 하고 캠프도 하고~ WOW!

### 2004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 일시 : 2004년 7월 30일(금)~8월 1일(일)
- 장소 : 부여청소년수련관
- 대상 : 도내 중학생
- 인원 : 청소년 45명
- 내용 : 봉사활동 탐구와 실천  
지당자연사박물관 관람  
염색체험, 스포츠댄스, 마술  
봉사활동 연극마당 및 어울마당

### 지역교류



- 일시 : 2004년 8월 4일(수)~8월 6일(금)
- 장소 : 경기도 여주 청소년수련원
- 대상 및 인원 : 충청남도 청소년 40명  
인천광역시 청소년 80명  
지도자 11명
- 내용 : 천체관측, 마니또, 판교놀이, 명랑운동회,  
물고기 잡기, 뗏목체험  
수상훈련(레프팅), 캠프파이어, 양초공예 등

## 2004 아동누려회

- 일시 : 2004년 8월 3일(화)~8월 6일(금)
- 장소 : 공주갑사유스호텔
- 대상 : 보육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아동
- 인원 : 총 135명 (아동 120명, 지도자 15명)
- 내용 : 봉사활동 탐구학습, 봉사활동 실천  
서천한산모시관, 서천해양박물관, 지당자연사박물관 관람,  
크리스탈페이퍼플라워, 요술평선, 한지공예  
롯데월드 체험, 캠프파이어 등



## 형소년아르바이트 캠프

- 일시 : 2004년 8월 11일(수)~8월 13일(금)
- 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청소년수련원
- 대상 : 충남, 대전, 충북, 실업계 청소년 75명
- 내용 : 성공하는 리더자의 제세(카네기연구소 총청소장 박영찬)  
성공한 직업인과의 만남(프리랜서 MC 김준모)  
홀랜드 적성검사 및 해석, 역할극  
서바이벌 게임, 금융교육, 미디어 교육, 진로설계 등



## 장애우와 함께하는 형소년자원봉사 캠프

- 일시 : 2004년 8월 16일(월)~8월 17일(수)
- 장소 : 만리포청소년수련원
- 대상 : 도내 장애청소년 및 봉사자
- 인원 : 총 84명 (장애우 35명, 청소년 봉사자 35명, 지도자 14명)
- 내용 : 염전체험, 캠프포스터 만들기, 짝꿍과 점토인형만들기  
해변의 추억, 해변놀이, 해변정화활동, 목욕봉사활동  
캠프파이어, 세계꽃식물원 소풍,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견학



## 금강생태체험

- 일시 : 2004년 8월 18일(수)~8월 20일(금)
- 장소 : 금강발원지 뜬봉샘(전북장수), 금산 부리면 수통리(금강상류)
- 대상 : 도내 청소년 80명, 지도자 10명
- 내용 : 금강 발원지(전북 장수 뜬봉샘)~금강상류(금산 수통골) 수질  
검사, 환경교육, 어류의 생태체험 등



정서적 불균형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불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정서적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면 섭식 장애와 체중 증가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서적 불균형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서적  
 불균형이 섭식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섭식 장애가 정서적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섭식 장애  
 운동의 일부가 아니다. 의사들은 좀 더 광범  
 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분노관리학회(Michael Pipher)의 마이클 피셔 박사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모들로부터 받는 전  
 화의 50%가 자식들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국분노관리학회의 마이클 피셔 박사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모들로부터 받는 전  
 화의 50%가 자식들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영국분노관리학회의 마이클 피셔 박사는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부모들로부터 받는 전  
 화의 50%가 자식들에 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 여름 夏

여름의 15세기 표기는 '녀름' 이었는데 '녀름' 이 원형이다. 녀름의 어근은 '날-' 인데, 날(日)과 어원이 같다. 몽골어 나라(nara 太陽)의 어근 '날(nar)-' 과 같다고 하겠다. 일본어 나쓰(natsu, 夏)의 어근은 '날(nal)-' 인데, 국어 날(日)의 조어 '날' 과 일치한다. 여름은 태양의 계절이라 하겠다. 나이(年)는 '날이'나이'로서, '날' 은 역시 태양의 뜻이다. 이는 고대인의 시간 관념의 대상이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열매가 '열' 다. '열-' 의 동명사형 = 열음 = 여름  
----- 녀름짓다 ; 농사짓다, 녀름도타 ; 농사가 잘되다  
----- 녀름(夏)여름, 여름(實)열매

##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과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응급조치

식중독은 식품중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없거나, 있더라도 식중독을 일으키는 양까지 증식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으며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 3가지 점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세균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생육이나 생선에 묻어 있던 세균이 손이나 조리 기구를 매개로 하여 식품에 붙어서 증식 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손이나 조리 기구는 항상 청결유지 및 소독을 하고 식품을 보존 할 때는 용기에 넣거나 랩으로 싸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세균을 증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식품에 붙은 세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식하므로 세균이 증식 하기 전에 빨리 먹고 식품을 보존할 때는 냉장고에 넣거나 65℃이상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만져 보아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방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세균을 죽입니다.

식품에 붙어 있거나 증식한 세균을 가열하여 죽이는 경우 식품의 속까지 충분히 가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열할 수 있는 식품은 한정되어 있고 가열로 파괴되지 않는 독소도 있어 가열했으니 안전한 음식이라 믿어서는 안됩니다.

### 식중독의 응급조치

식중독에 걸린 것은 아닌가 라고 알아내는 것은 식후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이고 이때 같은 식사를 한 사람들이 같은 형태의 증상이

있으면 식중독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식중독은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목숨과 관계되는 중한 증상을 일으키는 때도 있으며 특히 저항력이 없는 유아나 고령자의 탈수 증상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식중독에는 기관지내에 구토 물이 막히는 일이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식중독에 걸렸다고 느껴지면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에 연락합니다.

식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구입한 가게의 영수증, 빈 용기, 포장지 등도 보관해 둡니다. 구토 물이 남아 있으면 보관합니다.

### 식중독의 응급조치

식중독에 걸린 것은 아닌가 라고 알아내는 것은 식후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이고 이때 같은 식사를 한 사람들이 같은 형태의 증상이 있으면 식중독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식중독은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목숨과 관계되는 중한 증상을 일으키는 때도 있으며 특히 저항력이 없는 유아나 고령자의 탈수 증상이나 구토를 동반하는 식중독에는 기관지내에 구토 물이 막히는 일이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식중독에 걸렸다고 느껴지면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보건소 및 구청 위생과에 연락합니다.식품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구입한 가게의 영수증, 빈 용기, 포장지 등도 보관해 둡니다. 구토 물이 남아 있으면 보관합니다.

출 처

[인터넷] <http://medical.songdong.seoul.kr/C60.html>



## [여학생 원하는 선생님]

여학생이 원하는 이상적인 '드림팀 스타 선생님'의 면면은 어떤 것일까?

최근 모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사이트에 '여학생이 원하는 학교'란 제목으로 각각의 과목에 딱 어울리는

남자 스타를 거명한 글이 확산되며 네티즌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스타들의 작품 속 배역이나 가수의 경우 노래 스타일 등을 고려해 재미있게 작성된

인기 만점 '스타 선생님'의 면면을 공개한다.



# 교장 장동건, 미술 권상우



### ▲교장 장동건

특유의 카리스마로 모두를 제압한다. 학생은 물론 선생님까지. 단점은 수업시간에 늦으면 눈이 뒤집히며 짜러본다.



### ▲국어 성시경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 낭송을 해주신다. 수업시간에 절대 졸 일이 없다. 가끔씩 안경 너머로 쳐다보는 눈빛이 왠지 느껴진다.



### ▲수학 원빈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집중력 100%. 단점은 "누가 그까짓 상장이 필요하다 그랬어?"라며 공부를 강요하지 않는다.



### ▲과학 김정훈

이과에 뛰어난 조예를 보이신다. 특기가 물리와 화학, 그리고 모창이다. 단점은 적성에 안 맞으면 자퇴를 권한다.



### ▲미술 권상우

몸매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신 선생님. 교육계를 은퇴하시면 화실을 차리고 싶다고 하신다. 출석 부를 때 아이들 이름을 틀리게 부른다. 한명서(한정서) 등...



### ▲경영 이서진

유학파 선생님. 미국의 선진 경영을 직접 배우고 가르쳐 주신다. 하지만 무엇이든 집착하는 여학생에게는 굉장히 냉정하다.



### ▲음악 비

선생님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저절로 배워진다. 전공도 음악. 노래를 따라부르다 보면 옷을 찢는 단점이 있다.



### ▲영어 차인표

수년간 (미국) 현지에서 사셔서 네이티브 발음을 그대로 구사한다.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제압.



### ▲도덕 지진희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으로 진정한 사랑과 의리를 일깨워준다.



### ▲체육 김남진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의 완벽한표본이다. 특히 수영에 일가견이 있다.



### ▲양호 강동원

큰 눈망울로 '괜찮나' 하고 한마디하면 아픈 곳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린다. 많은 학생들의 피병이 유발된다는 단점이 있다.



### ▲담임 조인성

고운 마음씨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신다. 수줍은 미소가 매력만점. 양다리 걸치는 여성을 제일 싫어한다.



장애, 여성, 독립의 조화

# 『거북이 시스터즈』



- 제 목 : 거북이 시스터즈
- 제작 년도 : 2002
- 제작 · 기획 : 장애여성 공감, 여성영상집단 움
- 상영 시간 : 46분

“이 나이가 되도록 혼자 바깥에 나가서 사본 물건이 오렌지 5개가 처음이었다면 누가 믿을까? 그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장애 때문에 학교에도 못 다니고 집에만 갇혀 지냈지만, 세상 속으로 용감히 뛰어들어 후 장애여성인권운동가로 변신한 박순천(척추만곡증과 저시력증, 30살), 정영란(골이형성, 36살), 그리고 박영희(소아마비, 42살). 이들은 함께 산다.

지난 97년 용감하게 독립선언했고 서울 고덕동의 한 집에 모여 3인1체가 되어 살고 있다.

전동휠체어에 몸을 싣고 집밖으로 나오는 데만도 40분이 걸리는 전쟁같은 일상이지만 독립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들의 일터인 장애여성공감에서는 잡지 ‘공감’을 발행하고, 그외 자기표현프로그램개발, 대중매체모니터와 관련정보제공 등 장애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한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전에는 집에서 만나야 했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으면 밖에서 만나자고 자신있게 말한다.”

-장애여성공감활동가 박영희-

- 제5회 서울여성영화제 여성공동체 부문 상영
- 2003 서울장애인권영화제 폐막작 상영
- 제4회 제주장애인권영화제 개막작 상영
- 제7회 인권영화제 상영
- 인디포럼 2003 상영
- 인디다큐페스티벌 2003 상영

### ● 감독 프로필 (이영 감독)

- 1999 <상암동 월드컵> 공동연출
- 2001 <개구우먼> 연출
- 2002 <성매매를 금하라> 공동연출
- 2003 <거북이 시스터즈> 연출
- 2003 <나이프 스타일 knife style> 공동연출



동아리

댄스동아리(천안여자고등학교)	We飛 ( <a href="http://cafe.daum.net/dnlqlzzang">http://cafe.daum.net/dnlqlzzang</a> )
검도동아리	한얼(천안북일여자고등학교) ( <a href="http://www.bigs.hs.kr/~kumdo/kumdo/bkc/bkc.htm">http://www.bigs.hs.kr/~kumdo/kumdo/bkc/bkc.htm</a> )

청소년이용공간

충청남도학생회관	천안시 원성동 191-3번지 ☎ 552-3190~1
천안청소년문화의집	천안시 원성 1동 261-38 ☎ 550-2588
천안도서관	천안시 문화동 84-16 ( <a href="http://www.ca.or.kr">http://www.ca.or.kr</a> ) ☎ 569-8886, 567-8886
천안시 중앙도서관	천안시 원성동 261-38 천안시 ( <a href="http://www.jungang.or.kr">http://www.jungang.or.kr</a> ) ☎ 550-2588
쌍용도서관	천안시 쌍용동 121-2 천안시 ☎ 550-2178
성거도서관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434 ☎ 550-2589

봉사활동 터전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천안시 쌍용동 1088번지 ☎ 571-0617, 8
아우내 은빛복지관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309 ( <a href="http://aunae.or.kr">http://aunae.or.kr</a> ) ☎ 556-6606
쌍용사회복지관	천안시 쌍용동 1284번지 ( <a href="http://www.ssbok.or.kr">http://www.ssbok.or.kr</a> ) ☎ 571-4064~5
죽전원	천안시 구성동 107-8 번지 ☎ 555-5444
신아원	천안시 삼용동 산 14-2 ☎ 565-5761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10가지 조언

## 1) 책임감을 가져라.

- 자원봉사활동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라.
- 약속시간은 항상 지키도록 한다.
- 만약 약속 시간에 갈 수 없다면 그곳의 누군가에게 전화로 알려준다.
- 활동처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에게 거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일하라.

## 2) 활동에 관한 업무세칙을 받아라.

- 하는 활동이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니면 담당자와 함께 활동 세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 어떤 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직무에 관해서 매우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관에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하라'는 식으로 자원봉사자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활동세칙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 3) 반응을 물어보라.

- 대부분의 정규 업무에 있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반응을 기대한다. 그러나 자원봉사계에서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안내나 혹은 이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다.

## 4) 자신의 한계를 알아라.

- 자신의 능력이상으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무엇을 하고 싶다 혹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 그리고 관계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현실이 되도록 그들과 한계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이다.

## 5) 지원체계를 만들어라.

- 자원봉사 활동은 매우 도전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일 수 있다.
-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 즉 다른 자원봉사자들, 친구들,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협조를 얻는데 좋은 일이다. 그리고 자신의 열의, 자신이 붙고 싶은 것 등 이것저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라.

## 6) 조정을 하라.

-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 자신의 능력에 맞는 활동을 사전에 기관과 협의 해야 한다.

## 7) 현실적이어야 한다.

- 물론 자신이 하는 활동이 어떤 효과가 있기를 원할 것이다.
- 그러나 자신의 기대가 비현실적이라면 직원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들과 마음 편한 관계를 갖도록 한다.
- 자신의 기대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는 한가지 방법은 사전에 담당자와 함께 업무와 활동 효과에 관해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 활동의 효과는 조금씩 느린 속도로 온다.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활동할 필요가 있다.

## 8) 무리하지 말라.

-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지치고 만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일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과중한 일은 흥미를 잃게 하고, 또 쉽게 열의가 식어버리게 된다.
- 가장 좋은 방법은 적게 시작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다.
-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알고 서둘지 말아야 한다.

## 9) 만약 일이 잘 되지 않으면...

- 만약 자신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아 그만 두거나, 또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해야할 의무를 마치고 담당자에게 다른 일을 맡겨 달라고 부탁한다.
- 만약 자신이 마음에 먹은 일을 다 마쳤거나 혹은 기관에서 원하는 일을 완수했다면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만둘 수 있을 것이다.

## 10) 새로운 활동을 하고 싶은 때를 알아라.

-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좋아하고 있더라도 1~2년 후에는 같은 기관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 그래서 몇 개월마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괜찮은지 확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만약 일이 맞지 않는다면 자신이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이 있는지 알아본다.
-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활동을 저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 변화와 도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융통성 있게 하고 그들을 진화시킨다.

### 1.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웠는지 생각해보기

자신에게 일을 하는 즐거움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한다. 지금까지의 체험을 토대로 스스로 보람을 느끼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본다.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때 기뻐는지,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하는 게 즐거웠는지, 아이디어나 정보 등을 전달할 때 재미있었는지.

### 2.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

먼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에게 끌어내야 한다. 그 위에 '하기 싫은 것'과 '꺼려지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갭은 노력만으로 극복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커리어를 높이는 데 있어 자신이 어떤 일에 능숙하고 무엇을 꺼리는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 3. 경험을 바탕으로 어울리는 직업군 찾기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자. 지금까지 잘 몰랐던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되거나 다양한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지금까지 자신에게 없었던 가치관이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경험은 취업은 물론 사회인이 된 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4. '정말 노력할 수 있을까' 스스로 확인!

각 기업과 업종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다르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사고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고 치자.

자신이 그런 직업환경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비슷



# ‘큐레이터’



각종 전시회 기획..  
예술분야의 이벤트업  
자..

만능 엔터테이너 큐  
레이터는 각종 전시회  
들을 기획하여 전시관과

작가, 관람객을 연결시켜 주는 예술분야의 이벤트업자이자 전  
시문화 선도자이다.

작가선정에서부터 디스플레이, 조명, 홍보 인쇄물 디자인까  
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문가이다. 협찬처도 섭외해야 한다. 육  
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동시에 필요하며 인문학 관련 지식이 꽤  
수준급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큐레이터라는 용어를 화랑의 작품 판매가  
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원래 ‘기획’을 하는 것이 큐레이터의  
가장 큰 책임 분야이다.

현재 국내에서 기획까지 담당하는 큐레이터는 50명 안밖  
이다. 한해 배출되는 작가가 4만 명, 그 중 활발한 활동을 하  
는 사람이 2,000명 정도이고 보면 가능성 있는 작가를 선별  
하는 작업도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큐레이터는 두 명이 같이 팀으로 일하기가 힘들다. 머리속  
구상을 두 사람간에 일치시켜야 하는데 불완전한 언어로는 이  
것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자기의 아이디어를 온전히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의 전시를  
완성했을 때의 보람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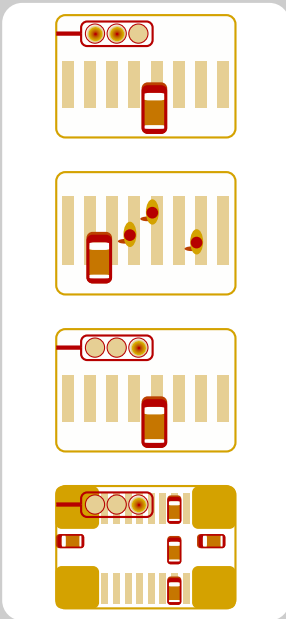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대중문화를 선도한다는 책임감이 필요하고, 독  
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창조력, 기획, 협찬처 선정, 디스  
플레이, 홍보물 제작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큐  
레이터에게 추진력은 생

(본 내용을 토대로 컴퓨터를 활용하여 미니 전단을 만들고 캠페인활동을 해보세요~)



# 정지선 준수 캠페인

## 경찰이 정지선을 단속하는 4가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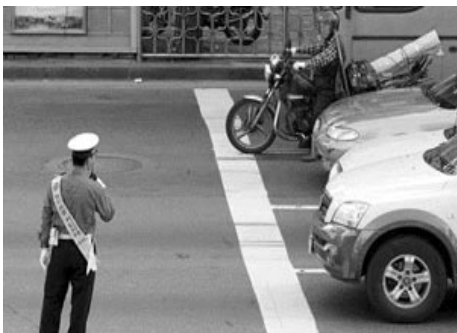
적색이나 황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할 때 이를 방해하며 정지한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멈춰선 경우  
범칙금 4만원

지방도로 등에 표시된 '일시정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3만원

### 정지선 지키기를 위한 몇 가지 요령



가급적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라

교차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땐 일단 정지하라

급정지할 때 비상등을 켜라

차량 정체시에는 시야를 넓혀라

직·좌회전 동시차로에서 뒤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진행해줘라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차량 지나가라

## 『정지선을 지킵시다』

□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2003년 4.4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 수준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띠 착용」생활화 운동에 이어 금년 5월부터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이 정착되면 정지선 위반 관련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질서있고 원활한 교차로 통행질서를 확립하고 남을 배려하는 밝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습니다.

- 전체 교통사고 중 교차로·횡단보도 사고가 29.2% 차지  
※ 교차로 사고 증가 추이 : 18.3%('01년) → 21.1%('02년) → 25.9%('03년)
- 교통 사망사고 중 교차로·횡단보도사고로 1,560명(21.6%) 사망

###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은,

「교통안전 범국민 운동본부」에서 민간주도의 범사회적 운동으로 추진하고 5월 집중 홍보기간 중 현장계도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하고, 6월부터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 과도한 위반행위는 선별, 엄정한 지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 위반 및 계도·단속 기준

위반기준 :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계도대상(과실, 경미한 행위) 질서협조요청서 발부

- 정지선을 일부 넘었으나, 다른 차량·보행자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  
단속대상(고의적인 행위) 통고처분(승용차 기준)
- 정지선을 과도하게 넘어, 다른차량·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 신호위반(15점, 6만원) : 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
  - ※ 보행자보호의무위반(10점, 6만원) :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 ※ 교차로통행방법위반(4만원) : 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 ※ 일시정지 위반(3만원) :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





## 여름철 장마 시작전

### 가정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보수하고, 낮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 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정비하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 상습침수지역

대피로, 지정된 학교 등 대피장소, 헬기장을 반드시 알아 두시고 전화, 확성기 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 둡시다.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 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간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 둡시다.

농촌이나 산간지역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하고 위험한 급경사나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둘러 보고 위험이 있는 곳은 접근을 막읍시다.

### 어촌 및 해안지역

수산증·양식시설물을 점검하여 균열, 파손부분은 사전보수하고 어선의 통신장비, 항해장비, 구명장비 등의 기능을 점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계곡 야영장, 해수욕장, 낚시터 등

배수시설 및 양수기 등 응급대책에 필요한 수방물자를 비축토록 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막도록 합니다.



#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 집이 침수 될 때

우선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해야 합니다.

## 고립되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지붕이나 옥상

등에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고 만약을 위해 스킨로프상자, 고무튜브, 뗏목을 이용하여 탈출합니다.

등산, 야영, 낚시, 피서지 등에서 조난당

## 했을 때

119구조대에 신속히 알리고 구조대가 발견하기 쉽도록 대피하여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옷가지를 매달아 위치를 알리고 체온을 유지하고 조난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었을 때

시군구나 읍면동 등 당국의 협조를 받도록 신속히 알리고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급히 연락하여 대피시키고 필요하면 마을주민을 조속히 동원·협조하여 응급복구를 실시합니다.

# 호우, 태풍이 지나간 후의 조치

## 침수되었던 집에 들어갈 때

가연성 또는 폭발성 물질이 있을지 모르니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설비, 가스 등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한전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곳의 지도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 침수된 농작물 관리

즉시 농약을 살포하고 신속히 물빼기를 실시,

쓰러진 작물을 일으켜 세우고 피해가 심한 작물은 대파를 실시합니다.

## 가축 및 축사 관리

깨끗이 소독하고 환기시설을 점검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며 붕괴된 축사는 보수토록 하고 가축에 대한 수인성전염병 예방접종을 합니다.

## 수산시설물 및 생물 관리

어장내의 오물 및 흙탕물을 빨리 제거해 주고 신선한 용수로 대체하고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해 주고 질병여부를 확인하여 어병약제를 사료에 혼합하여 급여해 줍니다.



# 팔봉산감자캐기체험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아래의 글은 지난 6월 19일(토), 본 센터의 농·어촌 체험봉사활동 중 <팔봉산감자캐기체험 봉사활동>에 참여한 창기중 1학년 김효정 학생의 체험수기입니다.

김효정(창기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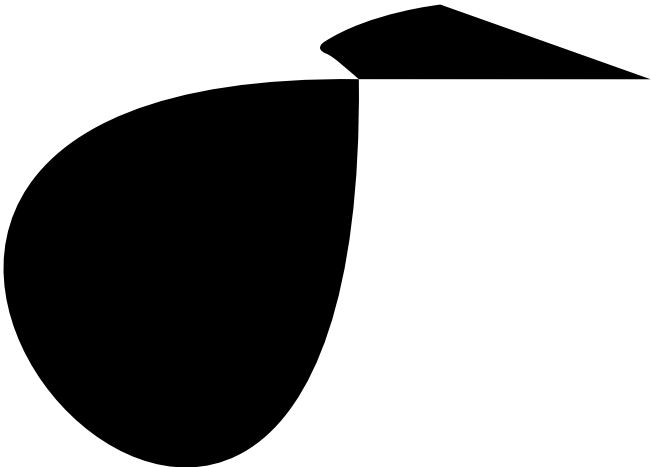
"주르륵, 주르륵" 감자를 캐러 팔봉산에 가는날 아침! 비가 마구 쏟아졌다. 처음에는 가기도 싫고 귀찮았지만 내 일생에 정말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고 설레었다. 관광 버스를 타고 팔봉산에 가서 나누어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 감자를 캐다. 비가와서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고 맨발로 밭으로 들어갔는데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된것 같았다. 나누어준 우비를 입고 호미를 들고 2인 1조가 되어

서 밭은 줄에 쭉그리고 앉아서 감자를 캐는데 재미있고, 봉지가 꽉 찼을 때는 흐뭇했다. 자원봉사 아저씨의 안내로 무개를 재고 친구와 감자를 반으로 나눌때는 즐겁고 더 캐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이 감자를 키울 때는 켈 때 보다 더 힘들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학교는, 각자 캔 감자를 2개 이상씩 모아서 4-H 효사모 활동에서 할머니들께 드리기도 했다. 뜻깊게 캐서 뜻깊은 곳에 감자를 쓰니까 더욱 즐겁다. 기회가 된다면 이 활동에 한번 더 참가하고 싶다.

아래의 글은 2004년 6월 19일(토), 본 센터의 농·어촌 체험봉사활동 프로그램 중 <팔봉산감자캐기 체험봉사활동>에 참가한 창기중 3학년 박민희 학생의 봉사활동 체험수기입니다.

팔봉산 감자캐기 행사를 가기로 해서 친구들과 함께 팔봉산 감자캐기 행사장에 갔다. 그곳에서 나누어준 도시락을 먹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신발을 벗고 맨발을 밟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집에도 텃밭을 가꾸어 감자를 심어보아야 할 것 같다. 아마도 내년쯤이면 내 손으로 심고 가꾼 감자를 맛볼 수 있겠지!

열심히 감자를 캐보았다. 크고 굵은 감자가 나올 때마다 '심봤다'를 외쳤다. 옷을 좀 버리고 손발이 더러워지긴 했지만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껴보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집에 돌아와서 내 손으로 캔 감자를 썰먹었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감자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우리 집에도 텃밭을 가꾸어 감자를 심어보아야 할 것 같다. 아마도 내년쯤이면 내 손으로 심고 가꾼 감자를 맛볼 수 있겠지!







**국기계양캠페인**

현충일날 쉬지 않고 나와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토요봉사활동(페이스페인팅)**

난 원숭이닷~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신이 난 어린이들과 함께 한 논어고 학생들



**토요봉사활동(페이스페인팅)**

와~부끄럼쟁이 언니 또 짝했네. 자.. 무엇을 그랬나요? 사진을 찍으려하자 또 부끄러워하는 부끄럼쟁이 언니..^^



**청소년문화체험봉사활동**

날뛰기 시범을 그대로 따라해 보지만.. 우린 왜 안되는 걸까?



**청소년문화체험봉사활동**

사포~ 곤장 50대라 급소?? 에이~~~ 서로 때려보겠다고 싸우는 저 여학생들. 전생에 흑시 사령이었나?



**청소년문화체험봉사활동**

나두나두.. 나두 저거 해볼래. 준향을 연습해보겠다고 주리틀기를 자칭한 한 여학생...으악~~하란다고 진짜 하나? 포효하는 사자 갈병..^^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봉사활동**

할머니와 숙튐기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봉사활동**

열심히 뜯은 쑥을 가지고 떡 반죽을..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이영희 사무국장님도 함께 맛있게 떡을 빚고 있는 중.



**토요봉사활동**

누나들이 이부게 그려주세요~누나, 전 램토리 그려주세요. 김지~



**토요봉사활동**

개나리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과 함께



**토요봉사활동**

사진 실습-너 오늘도 조는 거야? 자 봐봐.이렇게 그리는 거야..어머, 너 보고 있는거니?



**토요봉사활동**

나 아무래도 화가가 되야할 거 같아.. 페이스페인팅 연습에 빠져있는 학생들. 정말 화기같다.



충남 논산시 내동 840번지 (320-030)